

나주시, 혁신산단·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올인'



민선 6기 기업·투자 유치 계획

- ▲혁신산단 190개 (투자유치 5700억원·고용창출 3800명)
- ▲신도 일반산단 20개 (투자유치 600억원·고용창출 400명)
- ▲혁신도시 클러스터 90개 (투자유치 2700억원·고용창출 1800명)

혁신산단 채무보증 동의안 가결따라 사업비 추가 조달 민선 6기 300개 업체 유치·6000명 고용창출 목표 추진 각종 인센티브·서울 투자유치 설명회 등 적극 홍보 나서

나주시가 혁신산단(옛 미래 일반산업단지) 정상화의 첫 삽을 뜨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 나주시는 한전의 '에너지 밸리'(Energy Valley) 구축에 따른 기업유치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다.

◇혁신산단 사업비 추가조달 물꼬=나주시의회는 11일 제179회 임시회를 열고 혁신산단 채무보증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이번 채무 보증안은 나주혁신산단(주)이 최대 한도 400억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나주시가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1차로 200억원을 조달하고, 추가자금 필요시마다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조달하는 방안으로,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모든 비용을 포함해 4.0% 이내로 줄였다. 이번 채무보증으로 사업비 추가조달이 제때 이뤄지면서 자금운용이 원활해져 공사추진(전체 공정률 82%)과 분양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나주시는 재정한계를 극복한 지원대책 마련에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혁신산단, 신도산단의 분양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에너지관련 기업유치 목표를 2016년까지 100개, 2018년까지 250개, 2020년까지 500개로 잡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주시도 민선 6기 동안 3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투자액 9000억원, 6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유치로 목표는 ▲나주 혁신산단 190개 기업(5700억원·3800명) ▲신도 일반산단 20개 기업(600억원·400명) ▲혁신도시 클러스터 90개 기업(2700억원·1800명) 등이다.

시는 우선 올해 목표로 혁신산단 30개, 신도산단 8개, 클러스터 부지에 35개의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 ▲관내 이전 사업을 관외 3년 이상 영위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 ▲관내로 분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 ▲관내에서 공장용 신설·영위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유치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70억원, 수도권 외 50억원(국·도·시비 합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도 활발=나주시는 또 수도권 이전이나 국내복귀 중소기업에는 입지투자 금액의 40%와 설비투자 금액의 22%,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22%를 지원한다.

또 국비지원 미해당 기업에도 시 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입지투자 금액의 20%를



혁신산단 조감도



신도산단 조감도

시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전남도의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군 예산 매칭사업으로 이전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 중이다.

매칭사업에 주요 개정 내용은 ▲입지 보조금으로 분양실적 50% 이하 산단 3억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5명 초과시 초과 1인당 고용보조금(월 50만원 6개월 5억원 한도)과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20억원 초과액의 5% 내에서 차등 지원 ▲이전보조금으로 공장시설 이전비용의

10% 이내, 분사 이전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원 등이다.

시는 '1부서 1기업 유치'를 목표로 매 분기 1회 투자유치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투자유치 공무원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이달 중 전남도의 투자유치 전문가를 초청해 한전에서 나주시와 한전 상생협력처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서울에서 전남도 및 광주시, 한전 등 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관련 150개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지역의 산단 조성 관련, 인센티브와 분양가에 대해서도 촉구를 공동 세우고 혁신산단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와 인접한 53만평 규모의 평동 3차 일반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과 남구에 11만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계획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성장촉진지역으로 광주시나 타지역에 비해 입지·시설 보조금이 각각 10% 높다는 것과 한전이 위치한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혁신산단 완공을 앞당겨 인근지역에 산단이 조성되기 전 분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에너지 관련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홍보물 발송과 투자관련 기업 방문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 농장 4곳 AI 바이러스 잔존 여부 조사 오리 1만5000마리 사육 농가서 또 AI 양성 판정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나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4곳에 대해 12일부터 시험용 닭을 입식해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입식시험은 지난해 9월 영암에서 AI 발생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나주 남평읍·산포면·노안면 등의 4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나주 세지면의 농장과는 10km 이상 떨어져있는 방역대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입식시험은 살처분·소독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지 30일이 지나고 축사별 주변 검사를 2차례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바이러스에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산란계 6~12주령)을 3주간 시험 입식해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축사 내외, 진입로, 축산 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간강한 닭을 비 발생지역에서 구해 실시한다.

1차로 12일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닭(산란계) 175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축사당 5마리씩 입식한다. 이어 3주간의 입식시험 기간 동안 2일 간격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펼친다.

또 2차 입식 종료 즉시(3주 후) 시험축 175마리에 대한 혈청·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면 입식시험이 최종 완료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지난 9일 나주에서 육용오리 1만5000마리를 기르는 농가에 대한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양성판정이 나왔으며, 12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형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주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억4000만원 확보

나주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나주시와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 고용센터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약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나주 직업훈련원 전문가 과정 수강신청을 받아 9월까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나주 직업훈련원은 전산세무회계, 기계제작설비, 전기시스템 제어 전문가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직업훈련을 통해 703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이들의 취업률이 83.6%에 달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외에 2016년도 혁신도시 기관시설 관리 인력 양성 수업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선정돼 향후 나주지역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나주 직업훈련원 061-333-1060).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개장 3주년 목사고을시장 18일까지 고객감사 행사

나주 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사업단(단장 조진상 동산대 교수)은 오는 18일까지 개장 3주년 기념 및 설 명절 맞이 고객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사업단은 5만원이상 장을 본 고객 1000명(선착순)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증정한다.행사를 갖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참하여 온누리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

또 참조은마트, 태양수산, 창희나물, 시장협동조합에서 설명될 음식 장만에 꼭 필요한 식용유와 당면, 계란, 고사리 등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

안국현 상인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나주 시민들이 목사고을 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광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인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